

포장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한국폐기물학회와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가 3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한 심포지움 '포장 폐기물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주제발표자인 본 협회 최주섭 상무이사는 포장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활용 품목의 분리배출 실명제, 재활용 촉진 장려금, 폐기물 재활용기금 등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이날 발표된 주제 내용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 이날 심포지움에는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지난 3월 5일 개최된 포장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심포지움은 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 오재현 명예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한국경제신문사 박용정 사장, 한국식품공업협회 천명기 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포장 폐기물 재활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제1부 주제발표는 환경부 재활용과 홍준석 과장의 ▲ '폐기물 재활용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 '유럽의 포장 폐기물 재활용체제와 시사점' (숭실대 도갑수 교수) ▲ '일본의 포장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과 시사점' (일본 폐기물 문제 연구가 손영배 박사) ▲ '우리나라의 포장 폐기물 재활용체제와 문제점' (본 협회의 최주섭 상무) 등이 발표됐다.

제2부 토론에서는 통상산업부 장욱현 산업환경과장, 한국자원재생공사 이형식 정보처장, 대한상공회의소 이영록 이사, 한국식품공업협회 이성훈 업무부장, 상명대학교 박준우 교수,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 김영길 전무,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 안백순 상무,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나근배 이사 등 9명이 참석하여 토론 및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 우리나라의 포장 폐기물 재활용체제와 문제점

- "재활용 품목 분리배출 실명제, 폐기물재활용기금 신설해야"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금속캔 35%, 유리병 29.6%, 플라스틱 16.1%, 스티로폼 포장재 36.3%, 페트용기 38.4%, 종이팩

35.9%로써 생활쓰레기의 재활용률 26.2% 보다 높았다.

포장 폐기물 회수재활용 체제의 문제점은 분리배출 및 수거 단계에서 재활용 품목의 배출시 이물질 혼입, 페플라스틱류 등 무가 재활용 품목에 대한 분리수거 소홀, 전용 수거운반 차량 및 인력 부족 등이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중간 선별 및 재활용시설의 부족, 공공 비축시설의 부족, 재활용업체의 영세성, 원료로의 재활용 방법의 수요 한계 등이다.

포장 폐기물의 범규제 조치의 문제점으로는 예치금 대상품목의 재활용 의무율의 비현실성, 품목별 예치금 반환을 저조, 벌과금적 성격의 예치금 미반환금의 국고 귀속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직접 규제 방법인 재활용 품목별 이용 목표율과 예치금제도와와의 연계 고리가 없어 관련사업자간 상호협조 노력이 미흡하다.

국가 재활용사업기관인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고유 업무인 농촌페비닐과 농약 공병 회수업무 이외에 재활용 품목에 대한 분리수거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와의 업무 중복, 폐지와 고철 품목을 수집하는 민간 고물상과의 마찰, 그리고 페비닐 재생공장의 비효율적 경영으로 대규모 결손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그리고 포장재별 차등 규제의 문제점으로 페트병에 대한 예치금과 부담금의 중복 규제, 재활용 가능 품목인 합성수지류의 부담금 부과로 인한 재활용 유인책 미흡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 품목의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포장 폐기물의 분리배출시 봉투에 바코드를 부착하는 배출자 실명제를 도입하여 소비자도 하여금 폐자원의 깨끗한 분리배출을 유도하여야 한다.

분리회수 및 재활용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포장폐기물의 회수 의무율을, 그리고 생산자 그룹에게는 재활용 의무율을 부과하여야 한다.

재활용 시설의 확충과 재활용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재활용품목 선별 및 재활용시설 설치에 대한 인허가 조건의 완화, 공공 비축시설의 확충을 통한 수요 공급의 안정화 도모, 재활용 장

려금 지급이 있어야 한다.

예치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적정 회수 재활용량을 기준한 예치금 부과 기준량의 산출, 재활용 실적에 따른 예치금 반환금의 80%부터 120%까지의 차등 적용, 예치금과 부담금을 수입으로 하는 폐기물 재활용기금을 신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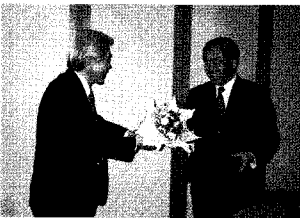
폐기물관련 주체의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소비자-분리배출, 지자체-분리수거 및 선별, 생산자그룹-재활용 책임으로 구분하고, 생산자그룹의 재활용 책무는 소재 제조업체, 용기 제조업체, 팩커 또는 필러, 유통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공동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지자체나 민간고물상이 하고 있는 사업을 중지하고 포장용기 재활용사업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기 보다

는 공공비축시설의 설치, 재활용사업자금의 용자지원, 재활용품목의 홍보 등 간접지원사업의 확충에 치중하여야 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포장 폐기물 통합 재활용시스템에 있어서는 독일의 DSD, 프랑스의 에코앙바라주, 일본의 포장폐기물재활용시스템 등을 무조건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미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제와 쓰레기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형 포장용기 재활용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며, 재활용시스템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생산자 그룹 중심의 경영을 하되 재활용 품목의 절대적인 수요 증대와 수집 및 재활용업체의 수익성 제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신임 임원진 상건례 및 공로패 증정



협회는 지난 3월4일 신임 회장 주재의 신임 임원진 상건례를 겸한 오찬회를 여의도 소재 「열빈」에서 가졌다. 이날 오찬회 직전 같은 장소에서 그간 협회 임원으로 업계 발전에 공

로가 큰 퇴임 추지석 회장과 조동찬

(한일합성수지), 송요태(삼일화학) 퇴임이사에 대한 공로패 증정이 있었다. 신임 임원진은 우종일(동부한농화학) 회장을 위시하여 최광현(금호케미칼), 이관우(동부한농화학), 조진선(신호유화), 이승원(LG 화학), 서정국(제일모직), 차국희(효성바스프), 손중근(억보화학), 조광연(승진수지), 최주섭(상근) 이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일본폐기물신문에 협회활동 보도

지난 2월9일자 일본 주간 폐기물신문에 스티로폴 재활용에 관한, 본 협회의 활동이 2면에 걸쳐 크게 보도되었다. 8면에는 가전사, 지자체 협력의 결과 등 한국의 발포스티렌 재활용 상황이 사진과 함께 보도되었으며, 9면에는 재활용단체 탐방기사로 본 협회를 소개하는 글이 실렸다.



정기총회 및 재활용유공자 감사패 증정

협회는 지난 2월26일 제6기 정기총회에서 재활용 유공자 6명에게 감사패 및 부상품을 증정했다. 유공자로는 스티로폴 재활용정책 수립을 추진한

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장정의 담당, 서울시 재활용과 심상용 사무관, 스티로폴 재활용에 힘쓴 진영수지의 홍순원 대표, 대영화학의 장영현 대표, 가전완충제 처리에 모범을 보인 대세산업의 김용대 대표, LG전자의 윤명오 대리, 그리고 협회의 시범 회수 사업에 도움을 준 부림물류의 신문한 기사 등 6명이다.

한림화학이 (주)우드랜드, 한림마크 인증 획득

스티로폴을 재생하여 환경에 기여하고 있는 (주)우드랜드와 한림화학이 지난 달 22일 환경마크협회로부터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건축자재 생산업체인 (주)우드랜드(인증번호 KELA-98005)는 스티로폴을 재활용한 원목대체제 에버우드를 개발, 원목바닥재가 갖고 있던 산림훼손 및 폐기시 비용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욕실발판 생산업체인 한림화학(인증번호 KELA-98004)도 페스티로폴을 재생한 욕실발판 및 다용도매트를 개발해 각각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환경마크 인증 획득은 스티로폴 재활용 제품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스티로폴의 재활용성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입증되었다.

부산·경남지역에 스티로폴 처리 감용기 설치

부산 공동어시장 및 부산·경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페스티로폴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 협회는 지난 3월 3일, 시간당 페스티로폴 농수산물용기 100kg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감용설비를 경남 김해 형물업체인 우성수지에 설치했다. 이로써 부산·경남 지역에서 발생하는 스티로폴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